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이재호, 정동재, 안병탁

한국은행 조사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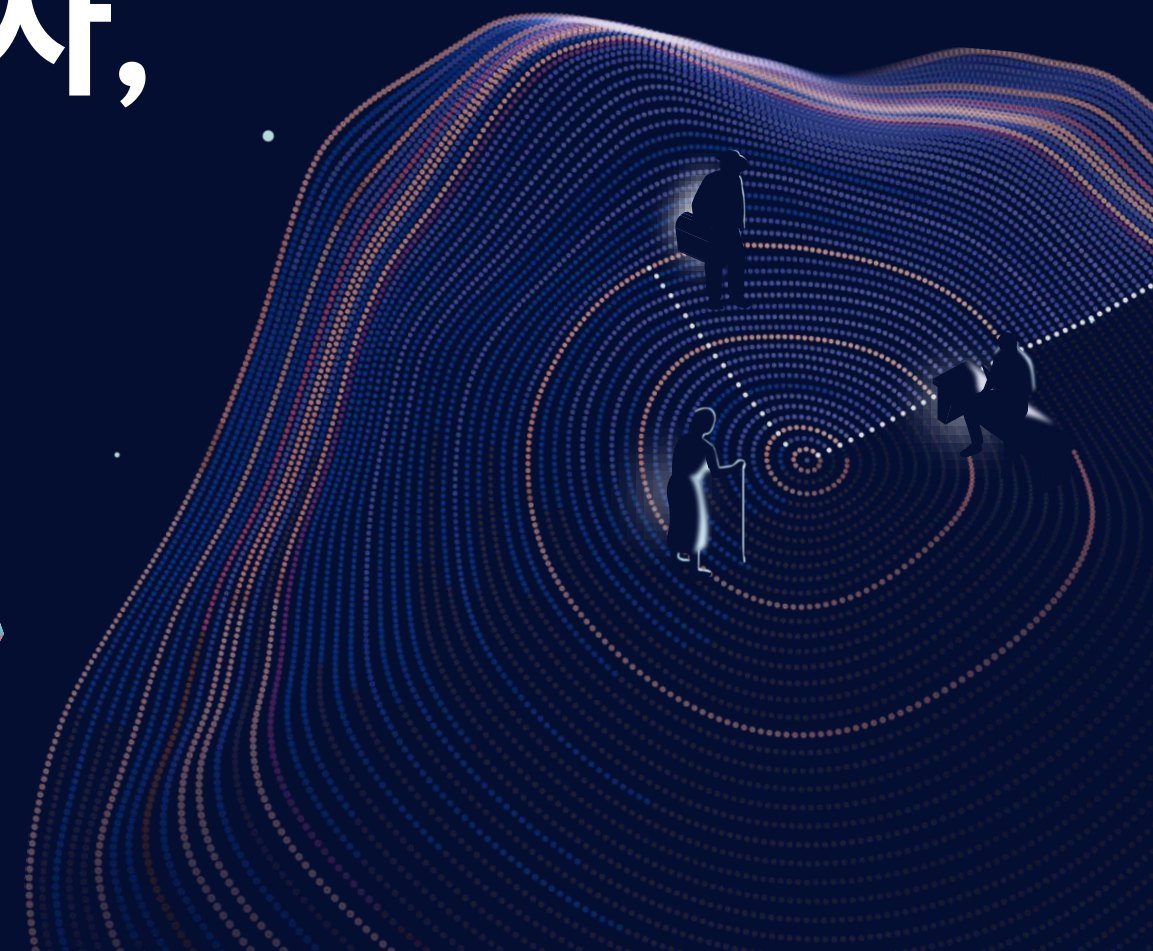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01

검토배경

Q1. 왜 고령 자영업자에 주목해야 하는가? (최근 고령 자영업자 증가 추이 및 전망)

02

고령 자영업자의 경제적 취약성

Q2. 고령 자영업자가 늘어나면 무엇이 문제인가?

03

고령 자영업자 진입 동기 분석

Q3. 고령 재취업자들은 왜 자영업을 선택하는가?

04

정책대응 방안

Q4. 고령 자영업자 급증에 대응한 정책방향은?



검토배경

Q1. 왜 고령 자영업자에 주목해야 하는가?
(최근 고령 자영업자 증가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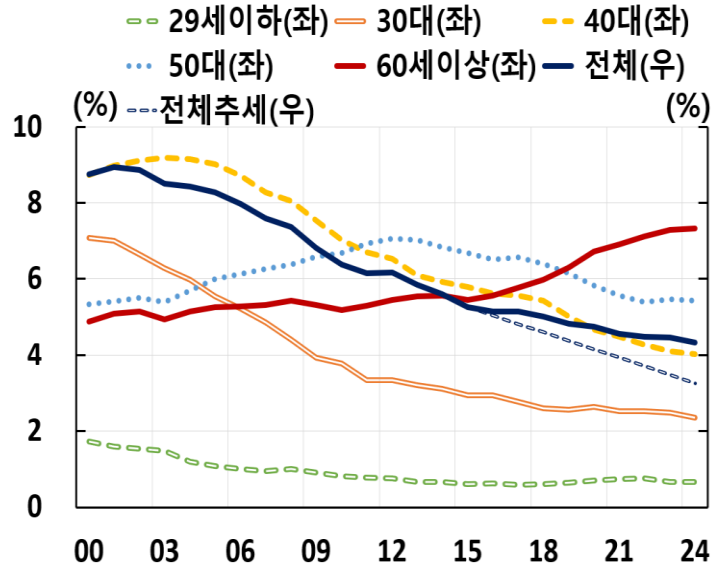
01

1. 검토배경 왜 고령 자영업자에 주목해야 하는가?

참고: 자영업자 규모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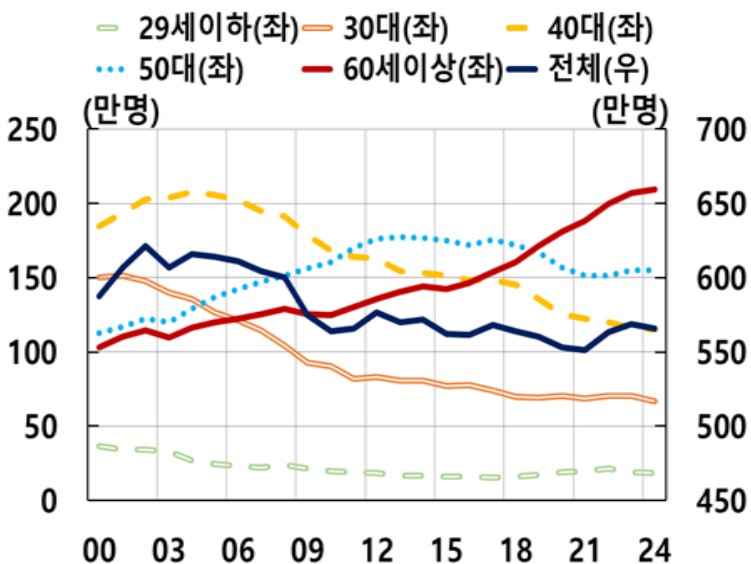
- 2000년대 초반 이후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 감소세 지속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00년 27.8% → '24년 19.8%)
- 2015년부터는 고령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빠른 증가로 조정속도가 크게 둔화
(비중 감소폭연평균: '00~'14년 Δ 0.40%p → '15~'24년 Δ 0.23%p)
- 전체 자영업자 중 고령 자영업자 비중도 2024년 37.1%까지 상승

연령별 자영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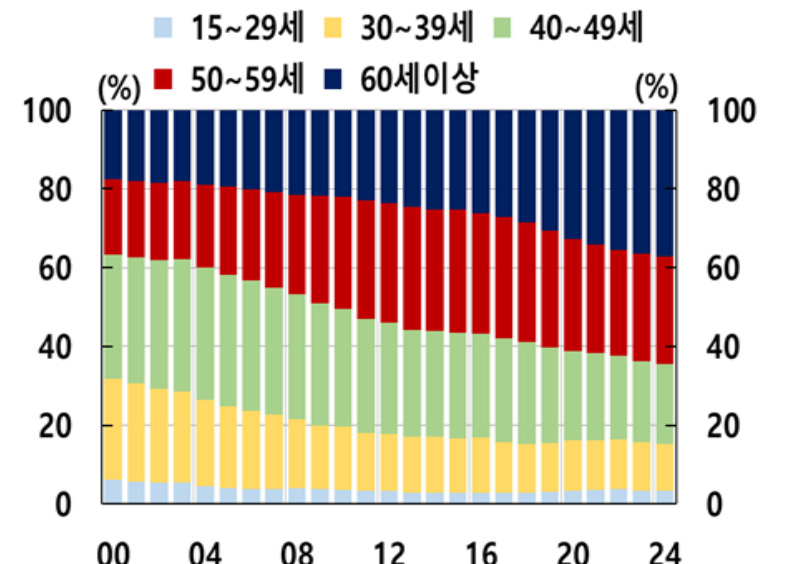
주: 1)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중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연령별 자영업자 수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자영업자 연령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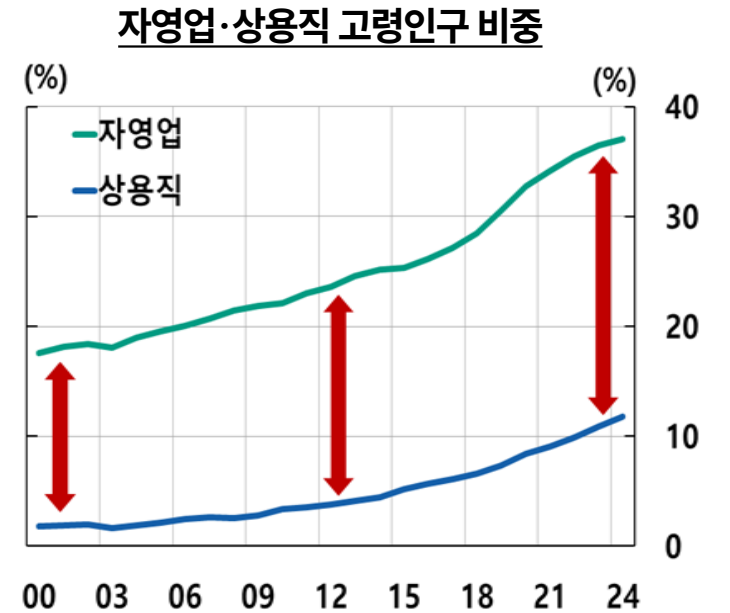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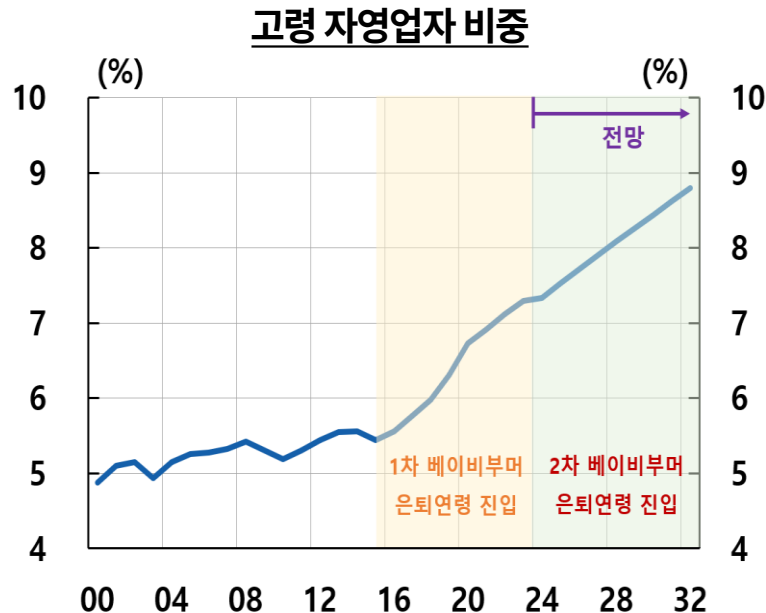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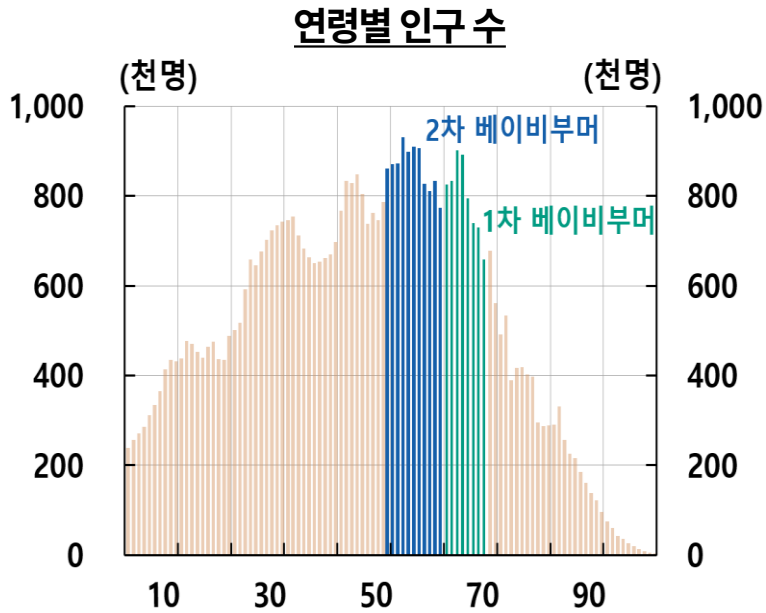
주: 1) 전체 자영업자 수 대비 비중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1. 검토배경 왜 고령 자영업자에 주목해야 하는가?

▣ 2015년부터 시작된 1차 베이비부머 세대 705만명의 법정 은퇴연령 60세 진입 15~23년중이 고령 자영업자 빠른 증가의 주된 원인

▶ 대규모 인원 퇴직 & 고령층 상용 일자리 한정 ➡ 자영업 진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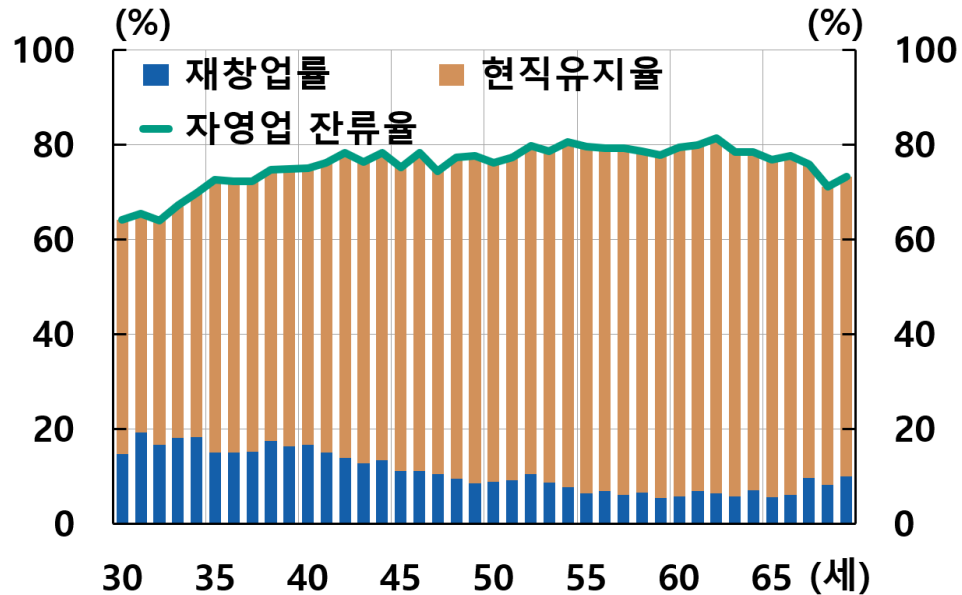
▣ 2차 베이비부머 세대 954만명의 은퇴연령 진입 24~34년중으로 증가세 지속 전망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 '15년 142만명 → '32년^e 248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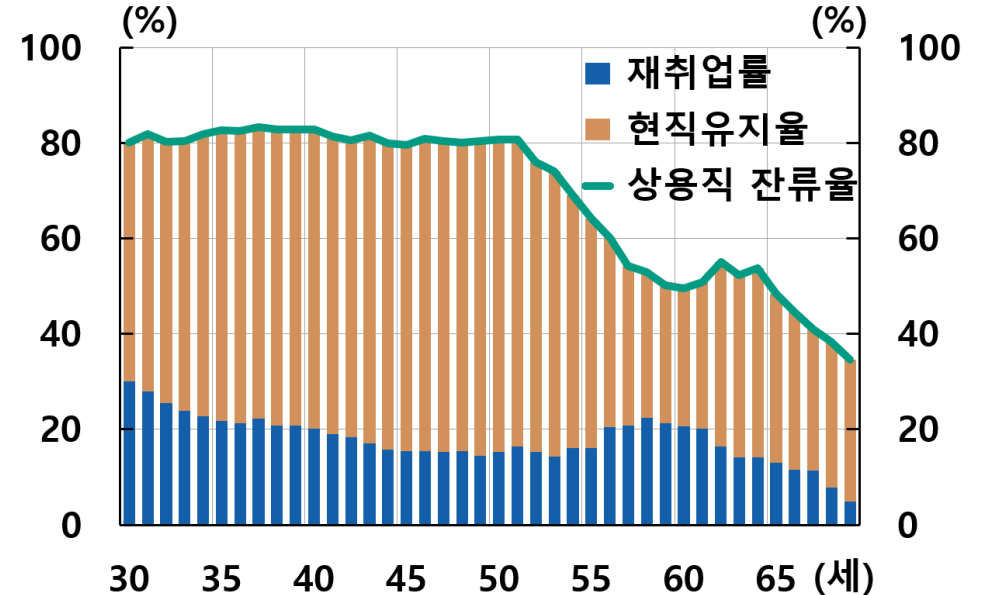
1. 검토배경 왜 고령 자영업자에 주목해야 하는가?

- ▣ 자영업자는 자영업 진입 후 계속해서 잔류하는 경향 매우 강함
 - ▶ 특히 자영업 잔류율 & 현직 유지율 50대 이후 높은 수준 지속
- ▣ 상용직 근로자의 잔류율 50대 초반부터 빠르게 하락
 - ▶ 정년 임박에 따른 자발적·비자발적 이유로 기존 직장 이탈 추정

자영업 잔류율 및 현직 유지율



상용근로 잔류율 및 현직 유지율



주: 1) 자영업(상용직) 잔류율은 각 연령대의 자영업자(상용근로자)가 향후 5년 후에도 자영업(상용근로)에 종사하는 비율
 2) 현직유지율은 자영업 내에서도 재창업하지 않고 동일 직업(상용직의 경우 동일직업내 상용근로)을 유지하는 비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저자계산

1. 검토배경 왜 고령 자영업자에 주목해야 하는가?

<소결 1>

- ▣ 2000년대 초반 이후 우리나라 자영업자 구조조정 지속, 그러나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 비중 감소세가 크게 둔화
(∵ 1차 베이비부머 은퇴로 자영업 신규 진입 ↑ + 자영업 既진입 고령층 잔류 지속)
 - ▣ 지난해부터 시작된 2차 베이비부머 954만명의 은퇴로 고령 자영업자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 다음으로 고령 자영업자의 급격한 증가가 우리경제에 어떤 부담이 되는지
고령 자영업자의 경제적 취약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고령 자영업자의 경제적 취약성

Q2. 고령 자영업자가 늘어나면 무엇이 문제인가?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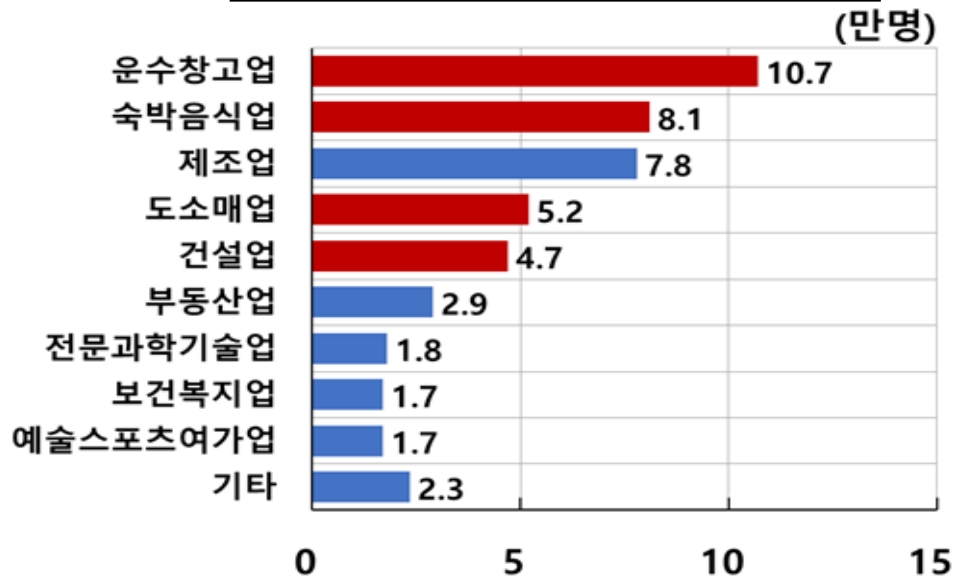
2. 고령 자영업자의 경제적 취약성 고령 자영업자가 늘어나면 무엇이 문제인가?

▣ [과도한 경쟁 노출] 지난 10년간 고령 자영업자^{농림어업 제외}는 46.9만명 증가,
이들 중 28.7만명은 진입장벽 낮은 취약업종*

* 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건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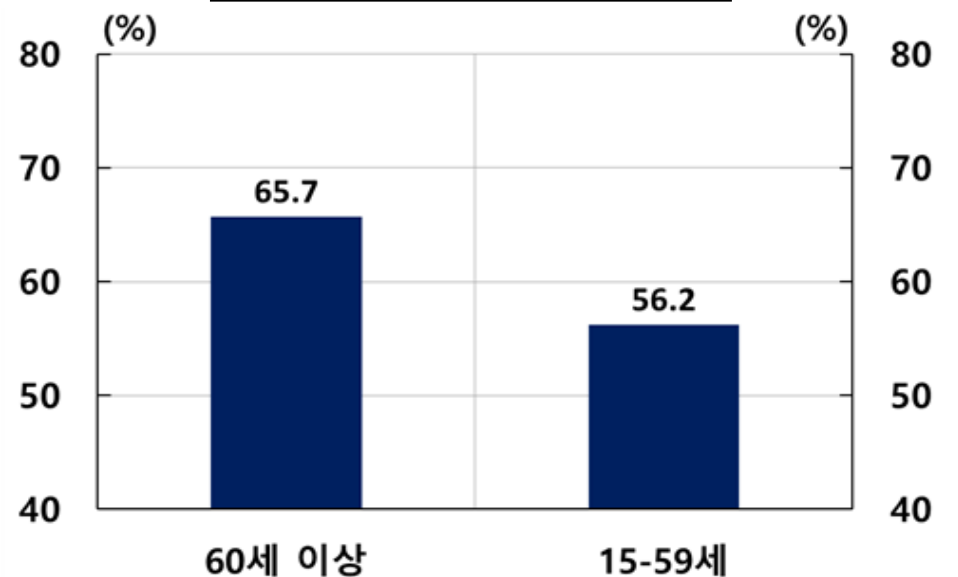
▶ 고령 자영업자 중 65.7% 취약업종 종사, 15~59세 56.2%보다 경기변동에 더 취약

지난 10년간 고령 자영업자 업종별 증가 규모



주: 1) 60세 이상 자영업자 기준
2) 2014년 대비 2024년 증가 규모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연령별 자영업자 취약업종 종사 비중



주: 1) 2024년 기준
2) 자영업 종사자 중 운수창고, 숙박음식, 도소매, 건설업 종사 비중(농림어업은 계산 시 제외)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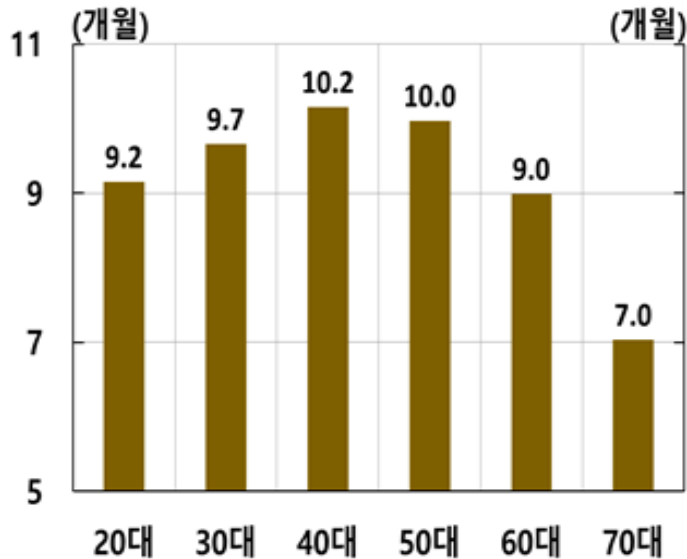
2. 고령 자영업자의 경제적 취약성 고령 자영업자가 늘어나면 무엇이 문제인가?

▣ [낮은 생산성] 60대 신규 자영업자*는 여타 연령대 대비 창업준비 ↓ & 생산성 ↓

* ①창업직전 임금 근로자였다가, ②처음으로 창업한 후, ③3년이 지나지 않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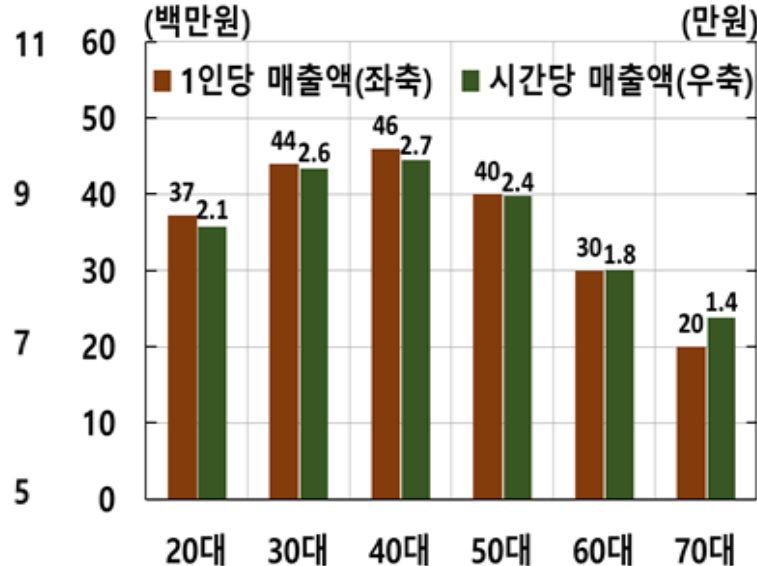
▣ [열악한 수익성] 과도한 경쟁 노출 & 낮은 생산성 ➡ 60대 신규 자영업자 중 35%가 연간 영업이익이 1천만원 이하

신규 자영업자
연령별 창업준비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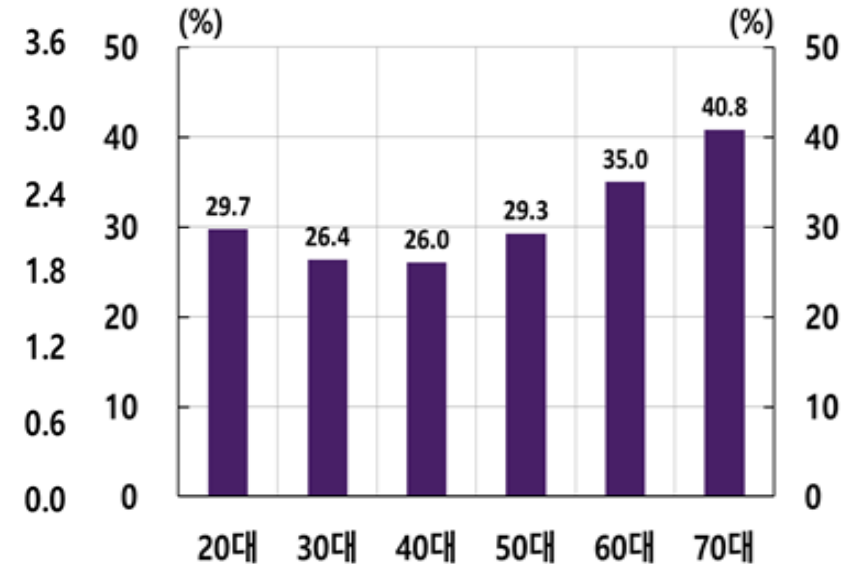
주: 1) 평균값 기준
자료: 소상공인실태조사(2022년), 저자계산

신규 자영업자
연령별 1인당·시간당 매출액



주: 1) 1인당 매출액(=연간매출액/종사자수)의 중앙값 기준
2) 시간당 매출액(=연간매출액/연간투입시간)의 중앙값 기준
자료: 소상공인실태조사(2022년), 저자계산

신규 자영업자
연령별 低 영업이익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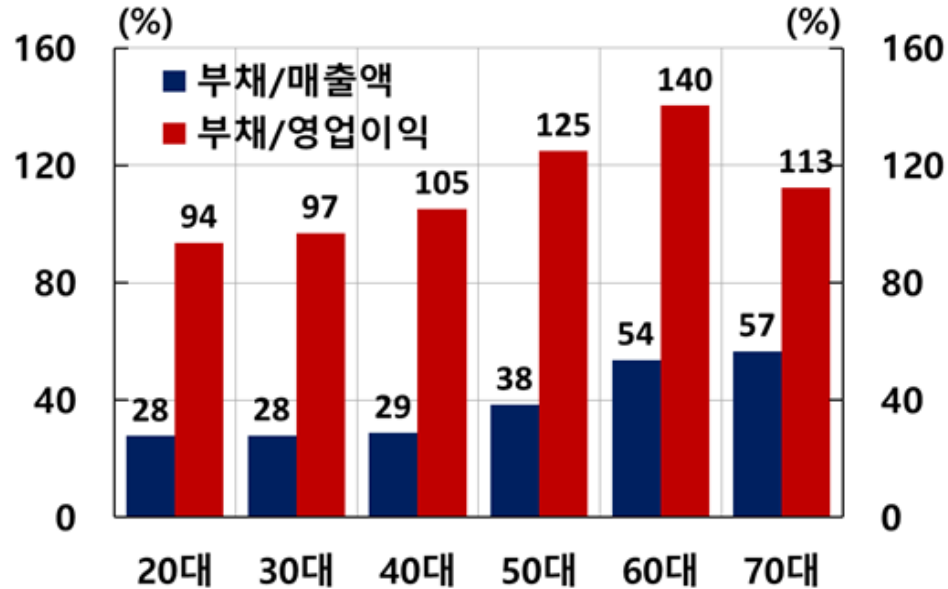
주: 1) 영업이익이 천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비중
자료: 소상공인실태조사(2022년), 저자계산

2. 고령 자영업자의 경제적 취약성 고령 자영업자가 늘어나면 무엇이 문제인가?

▣ [높은 부채비율]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창업 후 누적 부채비율(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대비)은
 여타 연령대 대비 매우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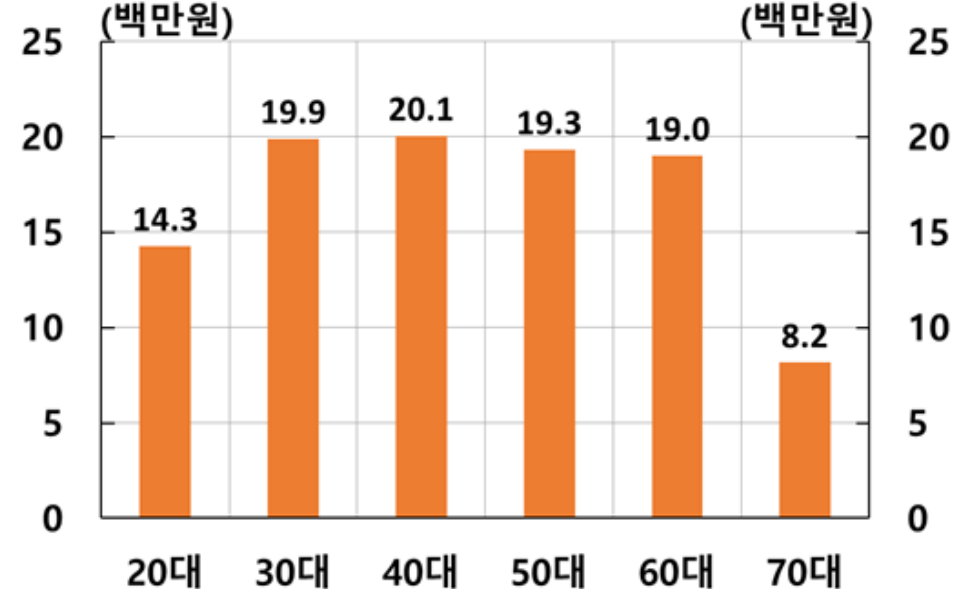
▶ 60대 창업 초기 외부조달금액은 30~50대와 대체로 유사,
 그러나 低생산성 등으로 수익성 ↓ & 운영자금 차입 ↑ ➡ 누적 부채비율 ↑

신규 자영업자 연령별 누적 부채비율



주: 1) 중앙값 기준
 자료: 소상공인실태조사(2022년), 저자계산

신규 자영업자 창업 시 연령별 외부조달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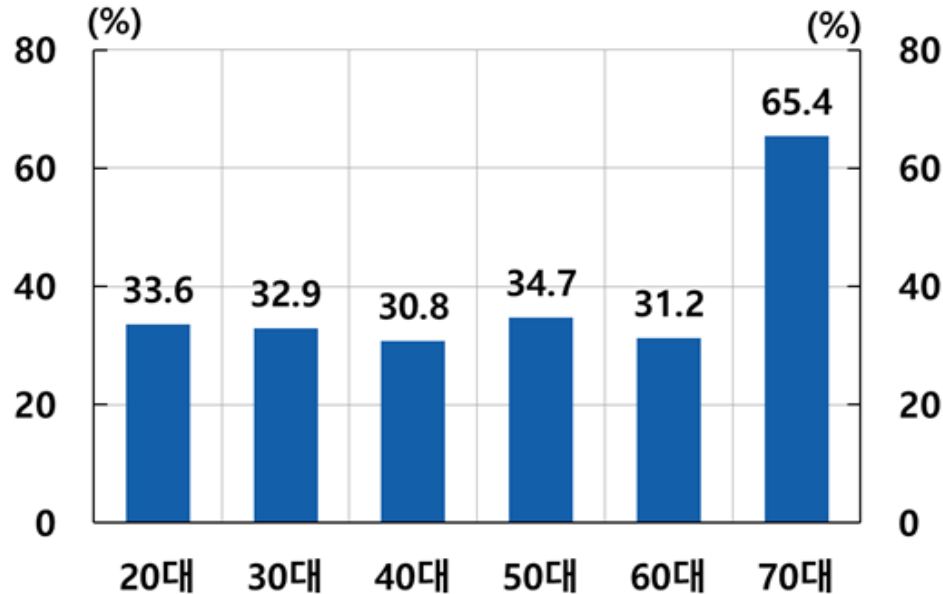
주: 1) 민간금융기관 부채, 정부정책자금 등의 평균값 기준
 자료: 소상공인실태조사(2022년), 저자계산

2. 고령 자영업자의 경제적 취약성 고령 자영업자가 늘어나면 무엇이 문제인가?

▣ [자영업 퇴로 부재] 60대 신규 자영업자(진입 3년 이하)의 5년내 자영업 이탈률은 20~50대와 큰차이없음, 그러나 60대는 폐업 후 상용직 전환 ↓ & 임시일용직 전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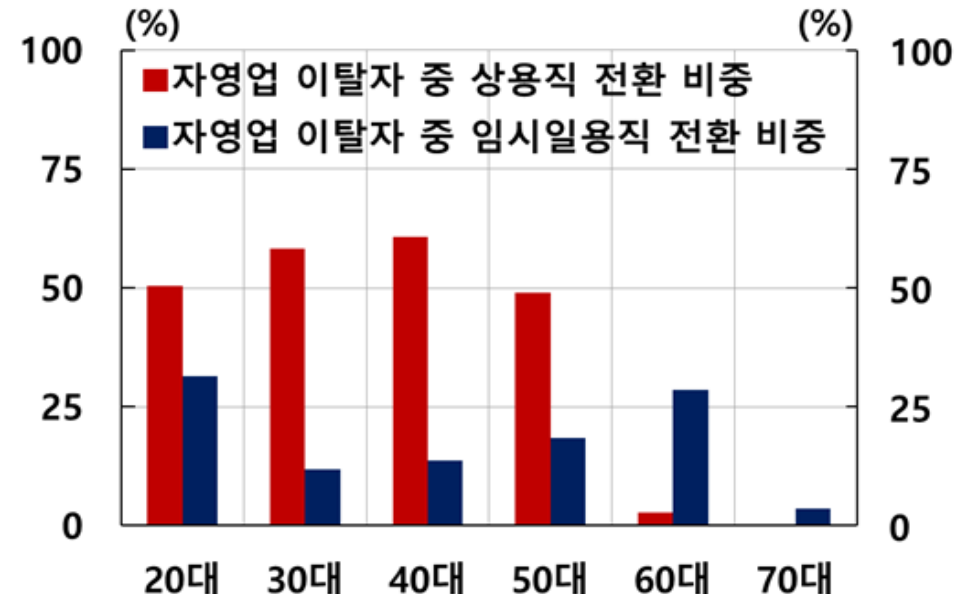
▶ 이는 고령층이 자영업에서 실패할 경우 경제적 회복이 매우 어려운 것을 의미

신규 자영업자 연령별 자영업 이탈자 비중



주: 1) 자영업 진입 3년 이내인 자영업자의 5년 후 자영업 이탈자 비중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저자계산

연령별 자영업 → 상용직·임시일용직 전환 비중



주: 1) 자영업 진입 3년 이내인 자영업자의 5년 후 자영업 이탈자 중 상용직 또는 임시일용직 전환 비중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저자계산

2. 고령 자영업자의 경제적 취약성 고령 자영업자가 늘어나면 무엇이 문제인가?

<소결 2>

- **고령 자영업자**들은 ①주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진입하고 있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며, ②준비 부족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여타 연령대 대비 수익성이 낮고, ③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리스크 요인**
- ⇒ 고령층의 과도한 자영업 진입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임금 근로에서 은퇴한 후 왜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지 진입 동기를 먼저 분석해볼 필요



고령 자영업자 진입 동기 분석

Q3. 고령 재취업자들은 왜 자영업을 선택하는가?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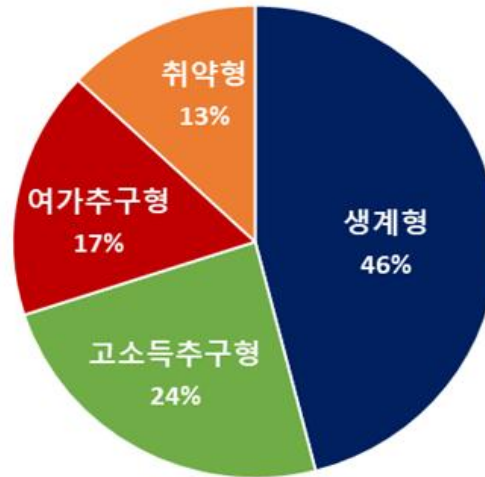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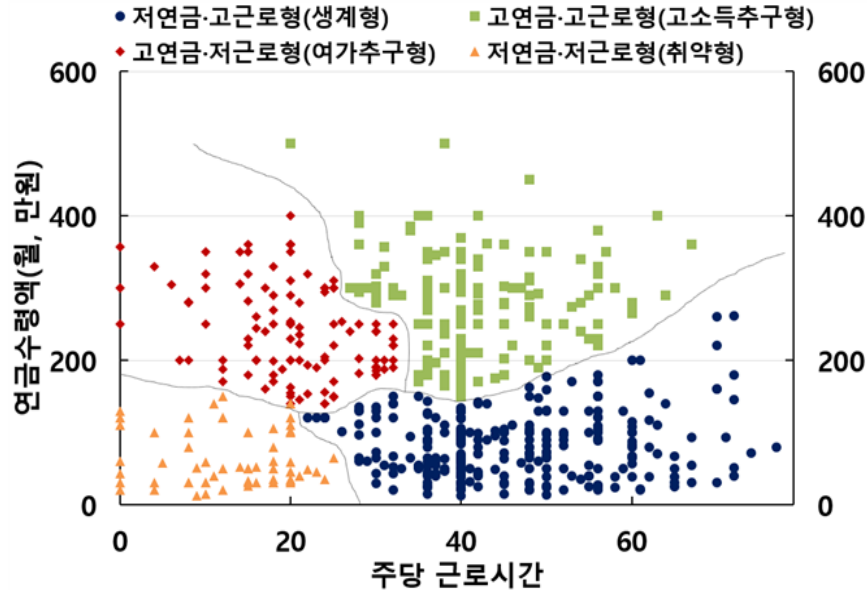
3. 고령 자영업자 진입 동기 분석 고령 재취업자들은 왜 자영업을 선택하는가?

▣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를 4개 유형(근로시간·연금 기준)으로 분류

* ①60세 이상, ②가장 오랜 일자리(임금근로)에서 50세 이후 퇴직한 다음 ③자영업으로 전환한 이들로 정의

- ① 생계형(저연금·고근로형, 비중 46%): 노후대비 부족으로 근로의지 강함
- ② 고소득추구형(고연금·고근로형, 24%): 연금소득 높으나 기업가 정신 발현 or 고소득 추구
- ③ 여가추구형(고연금·저근로형, 17%): 높은 연금소득 바탕으로 노동과 여가 균형 추구
- ④ 취약형(저연금·저근로형, 13%): 연금소득이 고연금자의 1/3 수준 but 근로시간도 적음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 유형별 분류



유형별 평균	연금수령액 (월, 만원)	주당 근로시간
생계형	79.3	45.6
고소득추구형	267.9	40.9
여가추구형	236.8	19.8
취약형	66.9	12.9

주: 1) 점선은 비지도학습 군집분석에 의해 도출된 4개 집단을 구분. 군집분석은 계층군집 분석인 Ward's linkage에 따른 것으로, 4개의 집단 개수는 복수의 지표(pseudo-F 등)를 기준으로 가장 우수한 집단분류를 보인 결과 2) Y축 연금수령액은 공적·사적 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의 월평균 금액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저자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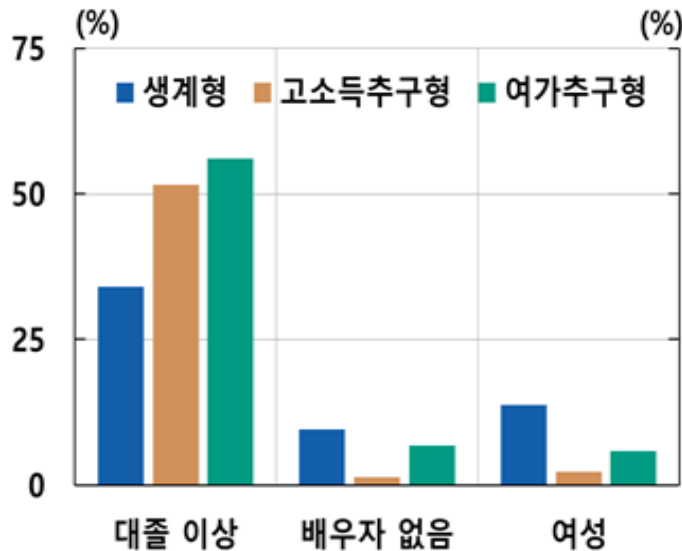
3. 고령 자영업자 진입 동기 분석 고령 재취업자들은 왜 자영업을 선택하는가?

▣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 유형별 특성

- ① 생계형: 낮은 학력, 전일제 선호, 운수창고업·숙박음식업·도소매업 등 종사
- ② 고소득추구형: 높은 학력, 근로의지 강함, 농림어업·운수창고업·전문과학기술업 등 종사
- ③ 여가추구형: 높은 학력, 시간제 선호, 농림어업·교육서비스업 등 종사
- ④ 취약형*: 낮은 유배우자 비중, 건강문제·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의지 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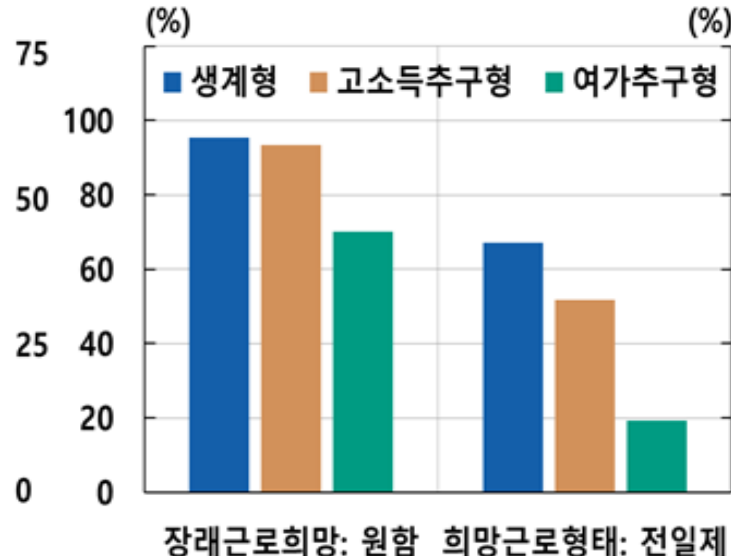
* 취약형은 노동시장보다 복지정책 측면의 접근 필요(분석 제외)

인구사회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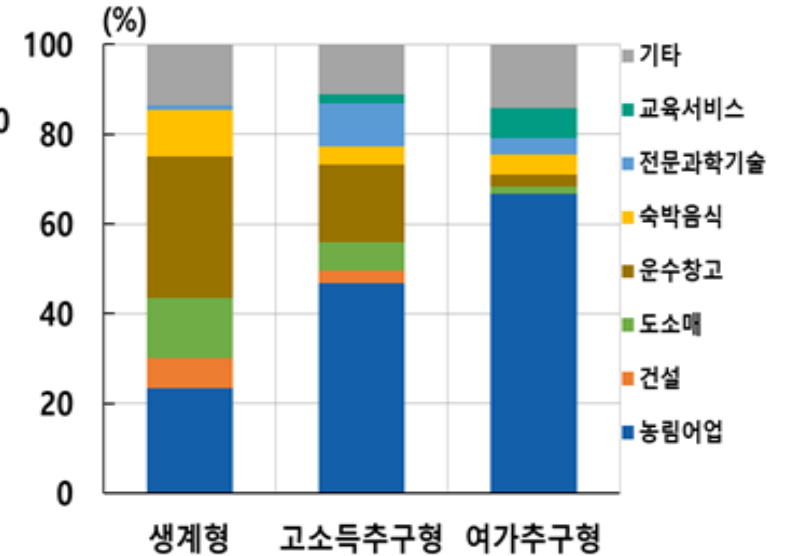
주: 1) 각 인구사회 특성 항목별 비중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장래 근로희망 여부 및 희망 근로형태



주: 1) 전일제, 시간제 근로 중 전일제 근로를 선호하는 응답 비중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종사업종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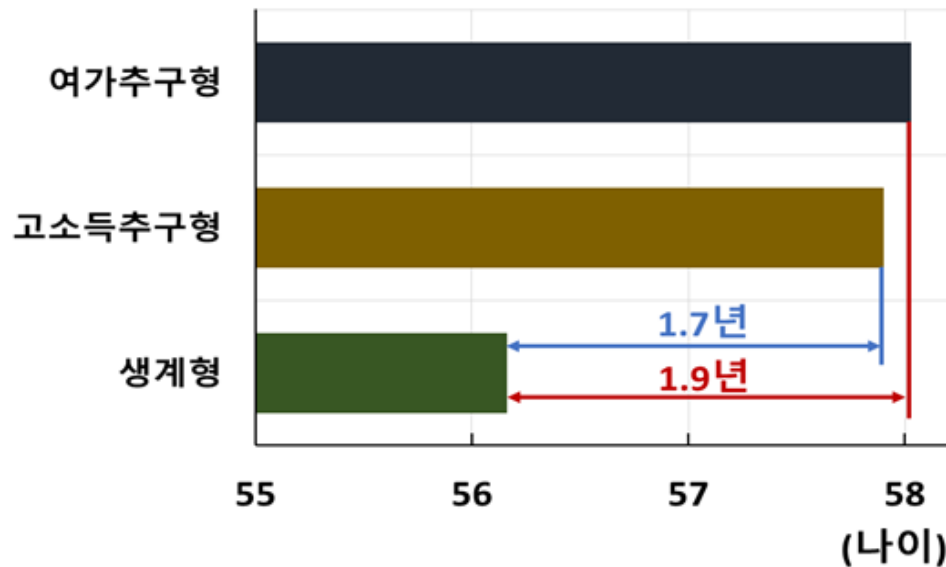
3. 고령 자영업자 진입 동기 분석 고령 재취업자들은 왜 자영업을 선택하는가?

▣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 유형별 퇴직행태

‘계속근로 가능성’을 중시하는 생계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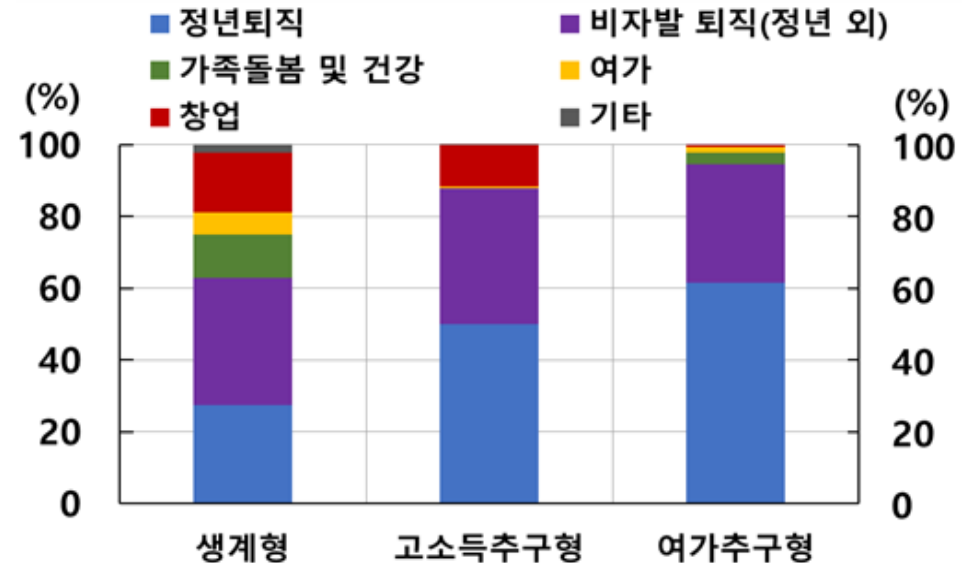
- ▶ (퇴직시점) 고소득추구형·여가추구형 보다 약 2년 정도 빠름
- ▶ (퇴직사유) 고소득추구형·여가추구형 보다 정년퇴직 비중 ↓ & 창업 비중 ↑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 유형별 평균 퇴직연령



주: 1) 가장 오랜 일자리 퇴직 기준
2) 50세 이후 퇴직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퇴직연령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유형별 상대적 비교에 적절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 유형별 퇴직사유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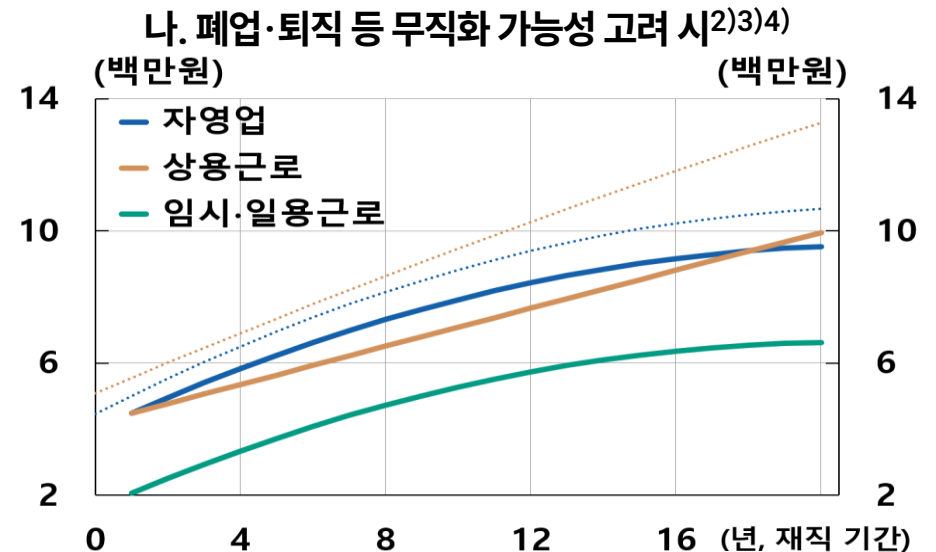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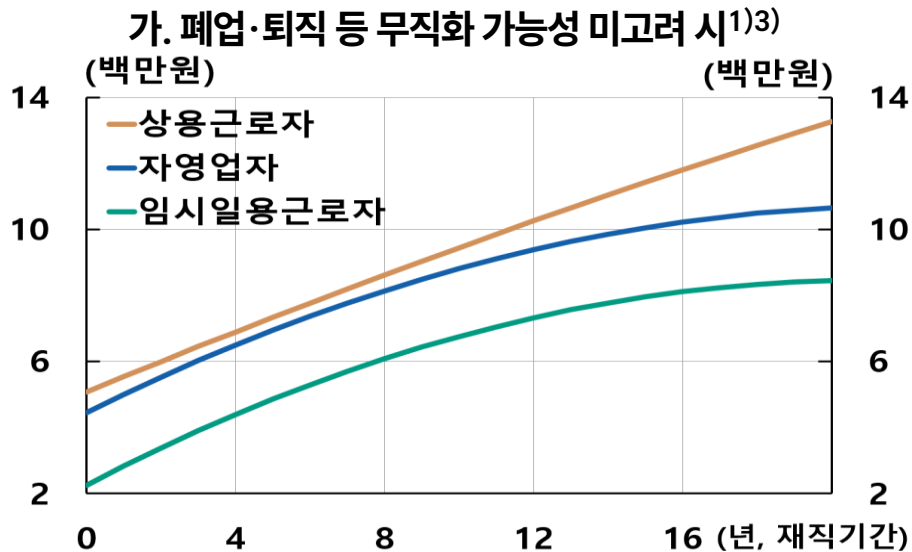
3. 고령 자영업자 진입 동기 분석 고령 재취업자들은 왜 자영업을 선택하는가?

▣ 기대소득(Mincer eqn.) 분석결과: 고령층 재취업 시 **'계속근로 가능성'** 중시

▶ 폐업·퇴직 등 무직 가능성 고려 (X) ⇒ 기대소득, 상용근로 > 자영업

▶ 폐업·퇴직 등 무직 가능성 고려 (O) ⇒ 기대소득, 상용근로 < 자영업

고령층의 종사상지위별 신규 진입 후 기대소득 비교



주: 1) 소득함수를 이용하여 고령층(60세 이상)의 노동시장 경력 및 현직 재직기간에 따른 기대소득(I_t^e)을 추정

2) 폐업, 퇴직 등 무직화 가능성을 고려한 오른쪽의 경우는 다음 기의 소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 후 I_{t+1}^e 를 추정함으로써 다음 기에 발생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

3) 해당 소득은 노동경력 및 재직기간 증가에 따른 기대소득 추이를 보기 위한 것으로 성별, 교육수준 등 여타 통제변수의 효과를 제외(변수값 0 설정)한 금액임에 따라 절대적 수준보다는 상대적 비교에 적절

4) 오른쪽 그래프에서 점선은 폐업·퇴직 등 무직 가능성 미고려 시 결과를 나타냄

3. 고령 자영업자 진입 동기 분석 고령 재취업자들은 왜 자영업을 선택하는가?

<소결 3>

- ▣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 임금일자리 → 자영업의 **상당수** 46%는 노후대비가 부족하여 근로의지가 높은 **생계형**으로 나타남
 - ▣ **고령층**이 은퇴 이후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은 자영업이 임금근로보다 **'계속근로 가능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 주로 기인
- ⇒ 이러한 진입동기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고령층의 과도한 자영업 진입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모색



정책대응 방안

Q4. 고령 자영업자 급증에 대응한 정책방향은?

04

4. 정책대응 방안 고령 자영업자 급증에 대응한 정책방향은?

★ 고령층은 재취업 시 '**계속근로 가능성**'을 핵심적으로 고려

➡ 과도한 자영업 진입 완화를 위해서는 고령층이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

①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오삼일 등, 2025)] 고령층이 기존 임금 일자리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

▶ 일본의 경우 2006년부터 고령자 고용 및 취업 확보 의무를 기업에 부과, 그리고 그 대상과 나이를 점차 확대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내용 및 추진 상황

주요 개정내용	연도별 개정 추진 상황	
▶ 기초연금 지급개시연령인 65세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① 정년연장, ② 계속고용제도(노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희망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 도입, ③ 정년제도 폐지 중 택일토록 의무화	2000년	65세까지 고용확보 노력 의무화
	2006년	65세까지 고용확보 의무화 (대상자 한정)
	2013년	65세까지 희망자 전원 고용확보 의무화
	2020년	70세까지 고용확보 노력 의무화

4. 정책대응 방안 고령 자영업자 급증에 대응한 정책방향은?

▶ 시나리오 분석 결과, 상용직 근로자가 정년 후 적절한 소득 조정을 동반한 계속근로가 가능하다면 자영업 전환 유인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

- 60~64세 계속근로정년 전 소득 60% & 65~69세 시간제근로정년 전 소득 40%를 가정하는 경우 상용직 잔류 후 소득흐름이 자영업 진입 후와 유사
- 자영업 전환·창업비용 & 소득 변동성까지 고려하면 상용직 잔류가 유리

시나리오별 고령자 연소득 흐름

55~59세	정년 후 경로	60~64세	65~69세
상용직 소득 ¹⁾ 5,090만원	① 상용직 잔류	(정년 전 소득 70%) 3,563만원	(정년 전 소득 50%) 2,545만원
		(정년 전 소득 60%) 3,054만원	(정년 전 소득 40%) 2,036만원
		(정년 전 소득 50%) 2,545만원	(정년 전 소득 30%) 1,527만원
	② 자영업 진입	자영업 소득 ¹⁾ 2,835만원	자영업 소득 ¹⁾ 2,067만원

주: 1) 상용직 근로자, 자영업자의 해당 연령대 가구주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중앙값
자료: 가계동향조사, 저자계산

상용직·자영업 연소득 변동성

유형	연소득 표준편차
60세 이후 상용직	238만원
60세 이후 자영업	470만원

주: 1) 연소득 변동성은 개인의 종사상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 소득 시계열의 표준편차 중앙값을 의미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저자계산

4. 정책대응 방안 고령 자영업자 급증에 대응한 정책방향은?

★ 그 외 고령층을 임금근로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② [서비스업 대형화] 고령 자영업자가 다수 종사하는 서비스업에서 임금근로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서비스 기업의 대형화가 필요

▶ e.g. 고령 자영업자 비중 높은 운수창고업·도소매업의 경우 대형업체(쿠*, 이*트 등)에서 임금근로 가능

③ [재취업 지원] 상용근로 이탈 후에는 재진입이 어려운 만큼 상용근로 내 고령층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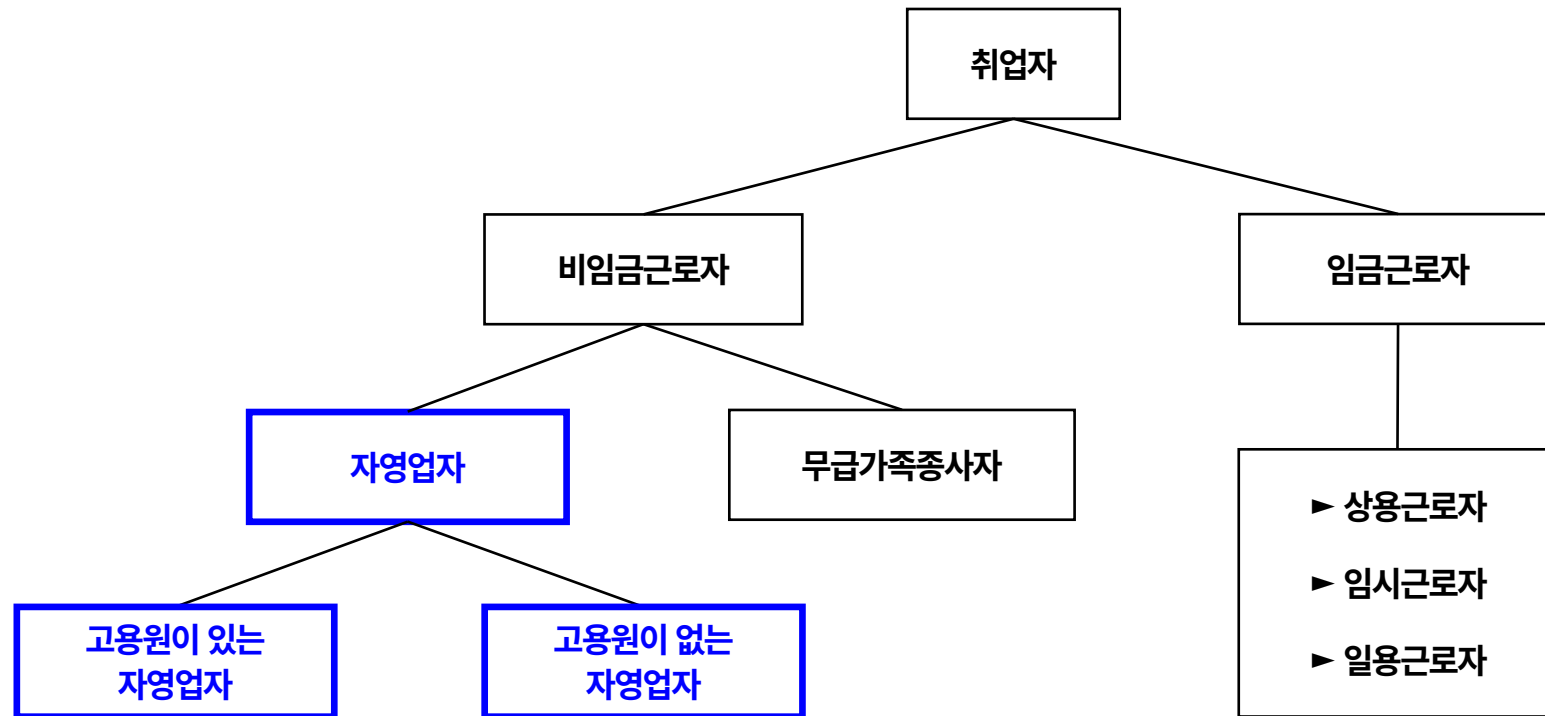
▶ 직업훈련·재교육(디지털 전환 등) 강화 ➡ 근로자·기업간 Skill Mismatch 완화

▶ 고령층을 지방거점 도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매칭

감사합니다.

Backup Slides

자영업자 정의(통계청)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한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함
-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또는 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와 유사한 개념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가 주요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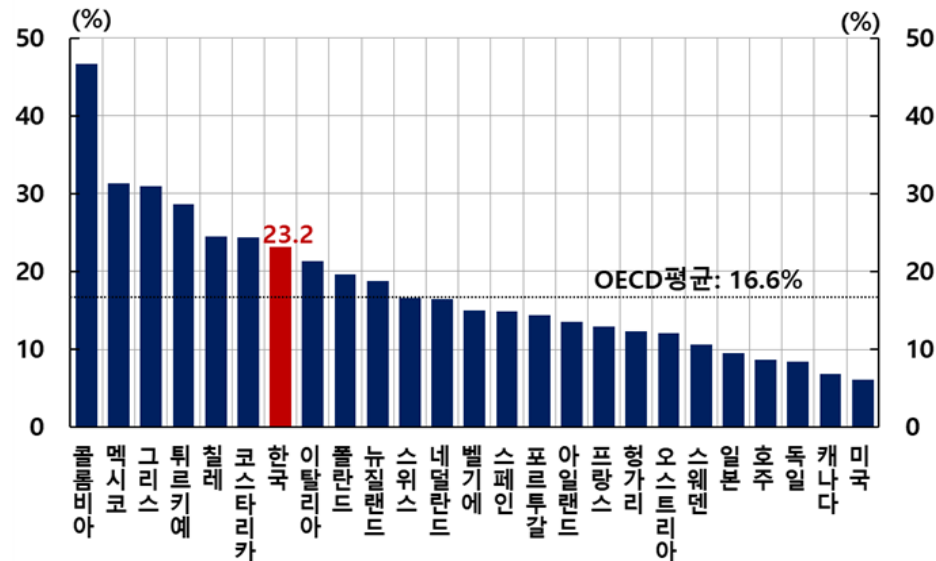
자영업자 규모 국제비교

▣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 주요국대비 여전히 높은 상황 OECD 회원국 중 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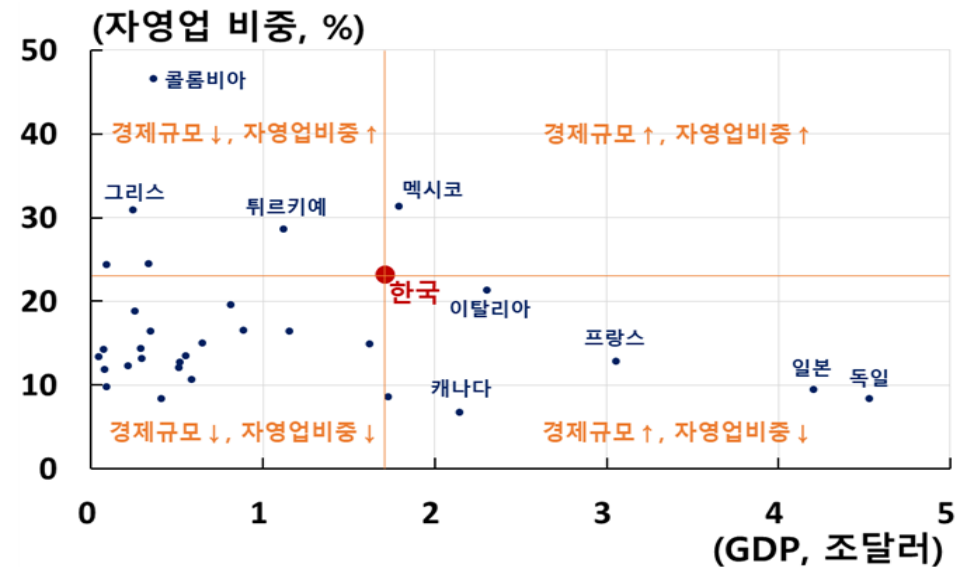
▶ 절대적 수준 뿐 아니라 우리 경제규모*에도 걸맞지 않은 수준

* 경제규모 ↑ ➡ 제조업·서비스업 대형화 ➡ 임금 일자리 창출 ➡ 자영업 비중 ↓

주요국 자영업자 비중



OECD 회원국 자영업자 비중과 명목 GDP



주: 1) 2023년 기준
 2) OECD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영업자에 포함함에 따라 우리나라 통계청 기준과 상이
 자료: OECD

기대소득 추정방법

- ◆ 한국노동패널 1~25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의 Mincer earnings function을 추정

$$\text{세전소득} = \text{고령여부} \times \text{종사상지위} \times (LME + LME^2 + TNE + TNE^2 + \text{성별} + \text{교육수준} + \text{지역} + \text{결혼여부} + \text{건강상태}) + \text{출생년도}$$

- <LME = 만나이 - Min(직장시작나이) - 휴직기간> 으로 노동시장경력을 의미
- <TNE = 만나이 - 현직장시작나이> 로 현직 재직기간을 의미

- ◆ 상기 추정된 계수를 바탕으로 종사상지위별로 TNE에 따른 예상소득을 산출

- 고령자_{60세 이상}가 현직장을 새로 시작한 시점에서 노동시장경력이 평균 26년임을 고려하여 LME-TNE = 26을 유지

- ◆ 무직 가능성을 고려한 경우는 다음 기 세전소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계수를 산출

- 다음 기 휴직, 은퇴, 해고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요소를 고려한 방식